

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, 비상 대처 합동훈련 펼쳐

강경창 기자 | 승인 2025.05.21 15:55



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(지사장 서기수)는 21일 '2025년 재해 대비 저수지 비상 대처 합동훈련'을 펼쳤다.

이날 군산 은파호수공원 내 미룡저수지에서 펼쳐진 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, 군산시 안전총괄과, 경찰, 소방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진으로 저수지 제방에 균열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, 비상 대처계획(AEP)에 따른 대응 절차를 점검했다.

주요 훈련 내용은 ▲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▲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전파 ▲시민 대피 유도 ▲관계기관 협력 대응 ▲응급 복구 및 항구복구 시연 등이다.

서기수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장은 '미룡저수지는 1,000여 세대가 인접한 도심형 저수지로, 재난 발생 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설'이라고 전제한 뒤 "안전한 영농 환경과 시민 보호를 위해 철저한 시설 관리와 비상 대응체계 점검에 온 힘을 다하겠다"라고 말했다.



강경창 기자 kangkyungchang@hanmail.net

저작권자 ©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